

사회

새해 첫날 강추위 온다

2010년 마지막날인 31일과 2011년 첫날인 1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또다시 강추위가 불려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30일과 31일 광주·전남·북 지역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31일과 1일 광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다"고 28일 예보했다. 31일과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2도가 예상돼 평년보다 5~7도 가량 낮겠으며, 월요일인 3일 오후부터 점차 풀려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한편, 29일 광주와 전남·북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29일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새벽 한 때 눈(강수확률 60%)이 온 후 그치겠으나, 밤부터 다시 눈(강수확률 60~70%)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함박눈 '펄펄' 28일 광주에는 하루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갑자기 내린 눈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우산을 쓴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첫 여성 총무과장

97명 승진·전보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이문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3급)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6면> 지방서기관(4급)에는 김경옥 광주송정도서관장이 승진해 광주중앙도서관장에 임명됐으며, 노정환 총무과주무관이 수완고 행정실장으로 발령 받는 등 5명이 5급으로 승진했다. 여성인 유영근 감사담당관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양승진 행정관리과장이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되는 등 서기관급 9명이 자리를 옮겼다. 유감사관은 광주·전남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무과장에 임명됐다. 또 6급 이하 27명과 기능직 17명이 승진하는 등 모두 51명이 승진, 46명이 전보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양산시 '언론사 출입 기준' 마련 전국에서 문의·자료 요청 '빗발'

지역 신문사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남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장(市政)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을 만든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전국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발행부수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고시·공고 등 광고를 중단기로 한 운영기준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문의 및 자료 요청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의전화의 가장 많은 곳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양산시가 마련한 기준안에 대한 자료를 주로 요청하고 있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featur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temperature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and a 7-day weather outlook.

선수학습 전면 금지령 파장

<先修學習>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도 대폭 단축... 학교 자율권 축소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일선 고등학교가 방학 중 운영할 계획인 입학 전 학습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진보 교육감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관치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교육이 시행하는 선수학습이 사실상 중단돼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고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일반계 고교에 공문을 보내 입학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 등 방학 중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 지침으로 자율형 공·사립고 6곳이 학생·학부모들과의 약속으로 이행할 계획이었던 입학전 프로그램 시행은 무산됐다. 이들 학교는 국·영·수 등 선수학습, 진로설계,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할 계획으로 학부모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해 공약한 바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 전 프로그램 금지에 대해 "과도한 교과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떨어지고 강제적 보충수업 등 일부 내용을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학전 프로그램이 무산돼 공교육에 대한 신뢰 추락과 함께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 됐다. 시 교육청은 또 겨울방학 중 추진되는 보충수업 시간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학교들은 2,3학년 진학생을 대상으로 100시간~120시간 이내로 운영할 것과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금지를 통보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월~금요일까지 1일 4~5시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120~140시간의 보충수업을 해왔으며 오후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해왔다. 그동안 학교별로 방학중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자율 운영해왔으며 교육당국은 특별한 규제에 나서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 교육활동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에 방학중 교육활동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장학관 등 9명으로 상설 점검반을 구성, 비정상적 운영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 고교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금지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학력신장,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 방학중 보충수업 운영 등의 긍정적 효과를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ouch 1 Card' (Touch 1 카드 출시!) and '하나SK카드' (하나SK카드) with details about card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시국선언 전교조전남지부장' (National Declaration of Education Workers Union) and '향소심서 신고 유예' (Postponement of Complaint Filing) with details about the union's actions and a request for leniency.

Large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cartoon knight on a horse and a hearing aid dev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Suncheon, and Mokpo.

Large advertisement for 'KBC 광주방송 문화탐방' (KBC Gwangju Broadcasting Cultural Expedition) featuring a tropical island scene. Promotes a '겨울방학 해외여행' (Winter Vacation Overseas Travel) package to Thailand, including a boat trip and elephant riding. Includes pricing and dates.